

# 손명수 차관, “대륙철도는 유라시아 번영의 첨병될 것”

- 10일 서울역에서 열린 대륙철도 상징 조형물 제막식 참석 -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10일(목) 서울역 맞이방에서 개최된 대륙철도 상징 조형물 ‘잇다’ 제막식에 참석하여 대륙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  -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희망래일에서 대륙철도 운행의 소망을 담아 제작한 ‘잇다’ 조형물의 제막 행사로서,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, 진성준 국회의원, 허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.
  - 손 차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은 ‘잇다’ 조형물에 각자의 대륙철도 열차표를 매달며 대륙철도 운영을 염원하였다.
- 손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“상호 철도 연결을 통한 경계 없는 확장은 국가 간 상생번영의 핵심 기반”이라면서,
  -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이끄는 첨병으로서 그간 단절되었던 한반도 철도와 대륙 철도망과의 연결을 강조하였다.
- 한편, 이번 행사는 코로나-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, 이번에 제막한 ‘잇다’ 조형물은 앞으로 3개월간 서울역 맞이방에 전시될 예정이다.

2020. 12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